

설 대목 택배대란 현실화

최근 노조 파업 따라 일반택배업체 조기 마감 도내 우체국마다 북적... 평소보다 2~3배 접수 도민 A씨 "명절전 한라봉 보내야 하는데 걱정"

"제 택배도 받아주면 안되나요."
"항공편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
에 당일특급은 마감하겠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우려했던 제주
지역 택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
다. 더욱이 최근 택배노조 파업 여
파 등으로 택배물량이 우체국으로
쏠리면서 택배 지연 사태도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전부터 제주시 연동 제주
우편집중국에는 택배를 보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택배 접수
창구 인근 복도 한켠에는 접수한
택배물량이 수북이 쌓여져 있어 통
행에 어려움도 있었다. 또 당일특
급 소포 접수대에는 방문객 수십여
명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우

편집중국 현관부터 방문객들로 붐
비는 등 그야말로 도떼기시장을 방
불케 했다. 이날 방문객의 택배 물
품 대부분은 만감류 등 제주 특산
품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날 도내 우체
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택배 노조 CJ대한통운 노조의 파
업 여파로 택배물량이 폭증해 도내
택배 업체 대부분이 설 연휴 전 택
배 접수를 조기 마감하면서 택배를
붙이려는 방문객의 발길이 우체국
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날 운영시간에 맞춰 제주우편
집중국을 찾았지만 당일특급 접수
에 실패한 A씨는 "당일특급 택배
를 접수하기 위해 아침일찍 우편집

중국을 찾기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마감 시간내 택배를 접수하지 못했
다"면서 "명절 전에 서울에 있는
가족에게 한라봉을 보내야 하는데,
일반 택배로 보낼 경우 지연 가능
성도 있다고 들어서 택배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주지방우정청에 확인 결과 지
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제주
지역 우체국을 통해 접수된 택배
물량은 총 13만여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만여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하
루 평균으로 따지면 2만여개에 가
까운 택배가 접수되고 있는 등 평
소보다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우정청 관계자는 "일
요일까지 접수된 택배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낮지만, 사실상 택배 접
수가 마감되는 화요일(25일)에는
사전에 택배 지연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halla.com



겨울에 핀 유채꽃 24일 성산일출봉 인근 유채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의 겨울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 설 연휴 '위기'

24일 오후 5시 기준 32명 확진... 오미크론 확산세 뚜렷

제주지역에서 하루새 30명대 확진
자가 발생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5시
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34명으로 집계됐
다. 이날 들어선 373명이 확진됐으
며 최근 일주일 사이 137명이 감염
됐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
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5명, 타
지역 관련 10명, 해외입국자 2명,

코로나19 유증상자 5명 등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
자 7명이 추가돼 도내 오미크론 누
적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대응
을 위한 방역 대응체계 전환 계획
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 전남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일부 지역에
서만 시행하고 있는 진단검사 방식
등 방역체계전환 계획은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은 보건

소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60대 이
상 고위험군에 집중하며 그 외 대
상자는 선별진료소의 자가신속항
원검사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진자 격리기간이 접종 완료
자의 경우 7일로 줄어든다. 미접종
자 및 이외 접종자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이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예방접
종 완료자는 자가격리가 아닌 '수
동감시'로 바뀐다. 미접종자는 7일
간 자가격리를 하며 6~7일 차에
PCR검사를 시행한다. 강다혜기자



2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우편집중국에는 다른지방으로 택배를 보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이태윤기자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4·3명예·피해회
복 사실조사단' (이하 사실조사단)
을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과 민간협력조
직 협조체제로 운영되며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흥
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
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
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해 결과보고서
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강다혜기자

■ 도감사위 한라도서관·인재개발원 종합감사 행정조치 11건... 신분상 조치 5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들 기관에 시정·주의·
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신
분상 조치 5명)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한라도서관은 도
서관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와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

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설계 내역
에 특정 공정에 대한 공사비가 중
복 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
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수
행하는 계약상대자로 관련 법령에
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
어 있지 않은 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건설기
술자격이 없음에도 건설기술용역
을 수행한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2명),
주의(1명) 촉구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6년 장기
국의 일반훈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박사학위 취득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지원했고 장기
국의 교육훈련자에 대한 지도·감독
을 소홀히 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
으며, 교육훈련자는 파견 명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기국의 교육훈련자
선발, 지도·감독 등 관련 업무를 부
적정하게 수행한 부서에 엄중 경고
를 요구했다. 고대호기자

2022 신기해! 복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로 인해 회원님들께 근심만 가득히 드리워졌던 신축년도 이제 다 지나가고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님 한분한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여려가지로 여의치 못해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남새마을금고는 작년 2021년 결산결과

- ▷ 총자산 2421억달성
- ▷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10억8천 실현
- ▷ 출자배당 4% + 이용고배당 1%
- ▷ 이익잉여금 7억5천 내부적립

이렇듯 제주도내 최고의 자산건전성과 안전성을 갖춘 튼튼한 새마을금고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남금고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임인년 2022년도에도 저희 산남금고를 아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여러가지 정책수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산남새마을금고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지역 상권은 물론 회원님들의 더 큰 만족을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남새마을금고가 제주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십시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MG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성길 외 임직원 일동